

탐방 대한불자가수회



대한불자가수회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만 동침회원 수에 상관없이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법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18일 법회 모습.

“부처님앞에 스타 없다”

군·교도소등 5백회 위문 각종행사 참여 흥들워

광고시장에서는 연예인을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연예인들의 사적·공적 행위는 대안한 파급력을 지닌다. 대중과 늘 가까이 있는 연예인이 포교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지대하다. 특히 조직력을 갖춘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의 활약은 불교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990년 12월 8일 1백88명의 불자가수가 모여 출범한 대한불자가수회는 초대회장 김홍국씨의 명활약으로 단체가 알려진 후 회원간 불협화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불교포교에 대한 역대 회장들과 회원들의 뜨거운 열의로 불교계 일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수불자회는 지난 9년간 '부처님 앞 스타'가 있을 수 있는 '가'를 화두로 삼고, 공연에 참석한 대중들의 반응을 수평의 척도 삼아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양로원 등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이들을 방문해 벌인 위문 공연만도 5백여 회. 불우노인돕기 자비의 바

자회,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당축제 등은 가수불자회의 정기행사로 열린 정도다. 또 가수불자회는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복회 출범을 직접적으로 돕는 등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생인 틈틈히 불음포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수불자회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신형 생활을 우려해 매월 한차례(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신형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가수와 비인가수의 정서적 견해 차이로 정작 활동 회원은 30여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회원간 화합을 통한 조직 일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수불자회는 지난 9년간 '부처님 앞 스타'가 있을 수 있는 '가'를 화두로 삼고, 공연에 참석한 대중들의 반응을 수평의 척도 삼아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양로원 등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이들을 방문해 벌인 위문 공연만도 5백여 회. 불우노인돕기 자비의 바 (psdo@buddhopia.com)

통도사 찾아온 약사보살들

동아대병원 연불회 70여회원 스님·신도 350명 무료진료

15일 통도사 설법전에는 때 아닌 병원이 문을 열었다. 동아대병원 불자회 연불회(회장 박옥규)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개원한 임시병원,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최대규모로 집적되는 이번 무료건강검진소에는 의사, 레이저, 간호사, 행정직원 등 총 70명의 회원과 의료진이 동참한 것을 비롯 초음파, 심전도, 이동식 X-Ray 촬영차량 등 30여 가지의 검사기구가 동원, 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진료 과목이 마련됐다. 수술기구를 제외한 모든 검사기구를 갖추고 시작된 이날 무료건강검진에는 스님과 신도 3백50여 명이 진료를 받는 등 성황을 이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통도사에서 열린 이날 무료진료는 중단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호트러짐 없는 신형을 보여준 값진 자리였다. 접수 및 기초 증상기록, 각종 검사, 전문의들의 진료, 약처방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 무료진료는 연불회가 한달여의 준비 끝에 어렵게 상사시킨 것. 심전도,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받은 통도사 강원의 성래스님은 "공부에 몰두하다보면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 도량에서 검사를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정세일 전문의(비뇨기과)는 "불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젊은 의사가 불교에 귀의, 의료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불회는 이날 검진결과 심각한 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결과 분석과 개인별 결과 통보 등을 20일 안에 마무리해 차후 불자들의 건강관리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의 의료봉사활동은 병원불자회가 불자들을 찾아 나선 적극적인



의료진과 행정직원등 70여명의 연불회 회원들이 15일 약사보살의 화신이 되어 통도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의 건강을 살폈다.

영호남 운전불자회 첫 합동법회

내달 5일...지역감정 해소 앞장

영호남 운전기사 불자들의 친선교류 법회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부산·대구·포항·경주 등 영남권의 운전기사불자회와 광주·전주·정읍 등 호남권의 운전기사불자회가 지역감정 해소 및 문화교류를 위한 대국민운동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한차례씩 영호남 친선교류법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흥인)의 주관으로 열

리는 제1회 영호남 친선교류 정기법회는 9월5일 동명불원에서 부산·대구·포항·경주·광주·전주·정읍 등 7개 지역 운전기사불자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법회는 영호남운불련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계 인사의 축사와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의 법어,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해동 용궁사 사찰순례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4월 부산시 한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질서봉사단으로 위촉받은 부산운전기사불자연합회의 질서봉사단 발대식도 거행된다. 051)627-1863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인각사 일연성사 열반 710주기 다례

보각국사 일연성사 열반 제710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18일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제에는 은혜사 본말사 스님 30여 명과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육법공양, 일연성사의 행장소개,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각사는 원효, 설총스님과 더불어 경산출신의 3성현 중의 한분인 일연성사의 추모 다례제를 해마다 봉행해 오고 있다.



천태종 상월조사기 배구대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15일 제26회 상월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충북 단양 영춘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전국 32개팀이 참가한 이날 울산 정광사청년회가 우승, 서울 성통사청년회가 준우승, 대구 대성사와 서울 명락사 청년회가 3위를 수상했다. 이날 천태종 중흥 도용스님과 총무원 스님들, 각 사찰 주지 등 2천여 명의 열띤 응원속에 배구의외에 축구, 줄다리기 씨름, 릴레이 등의 경기가 진행, 친목을 다졌다.



대·경 연등회 재일교포 모국답사 행사

대구경북 새연등회(회장 이용택)는 16~19일 재일교포 경북도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국 문화답사 행사를 벌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12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답사는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안동, 구미, 김천 지역의 불교문화유적을 돌아보며 한국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지개 걸린나무' 산사학교 열어

청소년포교지 일간(무지개 걸린 나무)은 13일~15일 경북 영양군 영성사에서 청소년 하계 산사학교를 개최했다. 중·고등학교 독자 2백여 명이 참여한 산사학교는 불화그리기, 사찰 예절교육, 수계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고추따기 등의 농촌일손돕기와 봉암모전 5층석탑(국보 187호)과 화전리 3층 석탑(보물 609호) 등도 참배했다.

봉은사 퇴임교원 연수 신형·노후생활등 안내

정년퇴직 및 명예퇴임을 앞둔 교직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연수가 사찰에서 열릴 예정이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9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법왕루 및 교육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올해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 예정인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참가비 없이 무료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퇴임 후 교직원들의 신형생활을 비롯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수에서는 '퇴임 후 노후 건강 관리'에 대한 선재현의원 강경현 원장의 강의와 퇴임 후 경제생활 방안에 관한 퇴직금 활용법, 각종 금융기법 및 창업 안내에 대한 제테크 전문가의 교육도 있다. 또 연금제도, 취미생활, 사회활동, 생활법률 등의 강좌가 마련되며, 보람찬 노후생활을 위한 스님의 법문도 있을 예정이다. 02)545-1448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동불 라이온스 월례회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길)은 23일 오후 6시30분 종로구 견지동 초향에서 월례모임을 갖는다. 2000회 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안 등을 심의한다. 02)733-4800

심우회 법문사 범당 낙성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2일 덕정 5기갑대 호국법문사 낙성식 및 부처님 집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문정사 덕현스님과 심우회 회원들을 비롯해 군 불자장병 2백여 명

이 참석했다. 02)533-2539

산악인련 호행도 봉안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9월11일 호행실천도량을 표방하고 있는 안동 홍은사에서 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스님의 '호행도'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02)232-6948

불기법 기자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준성)는 28~29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9 기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계 현실과 불교언론의

나아갈 방향(발표·김영규 문화일보前 편집국장)과 '불기법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22-4162

제천기사회 창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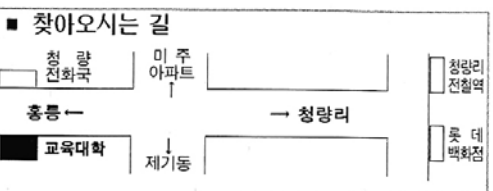
제천불자기사봉사회(가칭) 창립회의원을 모집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스님)은 31일까지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개인택시 불자운전기사를 모집한다. 0443)652-0900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장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오니 뜻 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승 -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Rows include 초급 교육과정, 전통 교육과정, 연구 과정.

-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작용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집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태아가 임부의 태를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통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통증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통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